

대강백 월운 스님의 마지막 전강

“교학은 부처님 가르침 실천 선·교 겸수 인재 나와야”

2월 16일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 학장 이취임 및 전강식 현장



월운 스님이 후임학장 정원 스님에게 직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월운 스님은 전강제자에게 휘호를 전했다.



“불기2560년 능엄승가대학원 연구반 제6기 졸업법회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 학장 이취임식 및 전강식”

“예로부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통 탈석이라고 합니다. 물러나지 않으려해도 후학들이 입실을 하니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바로 청출어람이라 합니다. 오늘 새롭게 전강을 받는 스님들이 기존의 강사들에게도 또 다른 자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스님은 또 “최근에는 선은 선, 교는 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시대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서는 선교가 다름이 없다”며 “후학들이 선교를 함께 익히고 이에 통달하는 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꽃도 시들면 다음 꽃을 피워 놔야 하는데 그 것이 바로 전강”이라며 “광석을 발견해서 금으로 만들었듯이 학장 스님은 이제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승가대학 졸업 후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에 입학해 5년간 수학했다. 선암스님은 청암승가대학 졸업 후 능엄승가대학원에서 3년간 수학했다. 전강제자를 대표해 각진 스님은 “월운 큰스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 스님들이 후학들을 위해 노력을 해주셨다”며 “승가대학원 졸업과 전강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역경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월운 스님 강맥 (Lineage chart showing transmission from Seokjeon to various monks, totaling 29 na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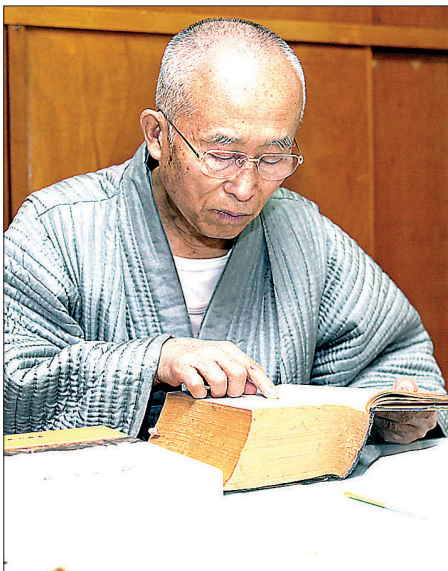
1959년 전강 받은 후 후학양성 역경불사·교학발전에 크게 기여 총 29명 제자에게 강맥 전수

주도한 역경사업도 운허 스님의 전강을 받으면서 본격화됐다. 스님은 “당시에는 맛도 모르고 불사에 참여했고, 어른 스님의 부탁으로 이렇게 있게 됐다. 이후 평생의 과업이 됐다”며 “후학을 양성하는 일은 새로 모신 학장 스님이 더 큰 원력과 능력이 있으니 잘 하시리라 믿는다. 아직은 힘이 남아있으니 함께 탐마해가며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강받은 스님들은 월운 스님의 이러한 당부를 깊이 간직하고 그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강식에서 월운 스님은 일연 스님에게 현담(玄潭), 각진 스님에게 ‘공곡(空谷)’, 범해 스님에게 ‘평천(平天)’, 비구니 선암 스님에게 ‘상연(常然)’ 당호를 내렸다. 당호가 쓰여진 휘호를 전달할 때마다 전강제자들은 노스님의 손을 꼭 잡았다.

전강식에서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은 “예로부터 눈앞은 확인이 감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가르치는 입장에서든 총명함 후학들로부터 자극을 받아 가르치는 방법이 향상하게 되니 이처럼 면학 풍토와 불교의 새로운 변화에는 배우는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관 스님은 “순수 학림을 가꾸고 그 제자에게 자리를 아름답게 물려주는 조실스님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강백 월운 스님이 걸은 길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학승 중 한 명인 월운 스님은 1959년 당대 최고의 강백으로 꼽혔던 운허 스님으로부터 전강(傳講)을 받은 후, 지금까지 60여년을 역경과 강의에 매진해왔다. 그 시작은 바로 책임의 재미에서 시작했다. 1929년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8년 남해 화방사에서 불경공부를 하다 출가했다. 당시 월운 스님의 한문실력을 본 화방사 스님들이 봉선사 운허 스님을 추천했고, 스님은 그 길로 운허 스님 슬하에서 공부하게 됐다.

스님은 2001년 한글의 소중함과 정신을 선양하는 이에게 수여하는 외출사 실천부상을, 2003년에는 역경과 도제 양성에 있어 혁혁한 공로를 세워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03년 포교대상’을 받았다. 2005년에는 ‘대원상’을 수상한 데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 대한 문화훈장인 ‘은관문화훈장’ 서훈자로 선정됐다. <선문염수·염승설화>를 번역, ‘2006년 지훈상’을 받기도 했다.

- 1929년 11월 경기도 장단 출생
1944년 3월~1947년 9월 향리 유림(柳陵)서당에서 금계(金桂) 선생에게 한학(漢學) 수학
1947년 9월 경남 해남 화방사(花芳寺)에서 출가
1949년 5월 화방사에서 운허(耘虛)스님을 은사로 득도. 법명 해룡(海龍)
1952년 3월 부산 범어사에서 자운(慈雲)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52년 4월~1953년 7월 부산 범어사 금정선원 수선안거
1956년 3월~1957년 8월 합천 해인사 강원 운허 스님 강석에서 대교과(大敎科) 졸업
1959년 4월 운허 스님께 입실, 제78세 법손. 당호 월운(月雲).

- 1959년 10월~1961년 8월 통도사 강원 강사 역임
1963년 2월 마산대(현 경남대) 철학과 졸업
1965년 10월부터 현재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83종의 經 역출
1976년 1월~1994년 10월 남양주 봉선사 주지 역임
1979년 3월~1993년 12월 중앙승가대학 교수 역임
1983년 4월 불경서당(佛經書堂)과 불교전문통신강원 설립운영
1993년 11월~2009년 2월 4대 동국역경원장 역임
1996년 2월~2016년 2월 봉선사 능엄학림 강주 역임
2000년 9월 한글대장경 전318권 완간
2001년부터 현재까지 봉선사 조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2016년도 1학기 수강생모집. Table listing various courses and instructors.